

### 데스크시각

김주정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제프 베조스가 서툰한 삶이던 1995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시작한 곳은 미국 시애틀 교외의 허름한 창고였다.

### 위기 이후가 더 두려운 광주·전남

‘위기일수록 투자하라’는 아마존의 사례는 하루살이도 합계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먼 나라 얘기일 수 있다.

#### 어려울수록 더 투자

하지만, 화려한 외적 성장에도 서비스 4년이 지나도록 흑자를 내지 못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과정은 상황 A에서 B로 향하는 모험이다. 경제위기 극복도 마찬가지다.

다. 여행이 끝난 후 웃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막 먹기에 달렸다. 막 먹기는 바라지 않다.

때문에 바라는 바에 대한 열의가 갈수록 수목 위기는 기회가 된다. 요즘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은 냉혹한 구조조정 속에서 대안광, 그린카, 헬스케어 등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생존과 미래 투자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살아남기와 먹거리

찾기는 발등의 불이다. 참여정부 5년을 지낸 ‘균형의 신화’는 광주·전남에도 화려한 산업부흥시대를 약속하는 듯했다.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온다는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금껏 단행의 땅도 사지 않은 것이 대표적 인 증거다.

#### 사라진 지역균형 ‘환상’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자는 수도권의 공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임박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안상수·임동규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제 방안을 발의하고, 국가균형 발전 법 수도권이 부실해진다고 야단이다.

그 사이 ‘수도권 집중법’으로 내용이 변질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 등이 지역 차별을 고쳐달라는 이유로 거부해온 ‘5+2광역시권’ 갈등도 슬그머니 막을 내렸다.

### 시설

#### 공무원이 5년간 10억 ‘꿀떡’해도 몰랐더니

해남군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10억 원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해남군과 경찰에 따르면 해남군 모읍사무소 7급 공무원 장모씨는 복지급에 지급업무 맡으면서 2002년 6월~2007년 9월까지 남편, 아들,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계좌 34개를 만들어 5년간 758명분 복지급여 3억6천만 원을 빼돌렸다.

몰랐다고 한다. 그동안 군이나 도 감사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당사자의 간 큰 행동도 문제지만 5년간 이런 비리를 몰랐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런데도 해남군은 이런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동안 군이나 도 감사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 私學 교원채용 비리 정광학원 뿐일까

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광주 정광학원의 교원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가 정광학원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갈 사안이었다.

아니면 감사기능이 ‘눈 먼 봉사’이든지 될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가 정광학원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학 자체의 힘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 환수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광학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18명의 기간제 교사를 같은 방법으로 채용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사학 자체의 힘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 환수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칼럼

서미정



학령기 이후 성인지적장애인이 갈 곳 이 없다. “선생님 우리 아이 맡길 데 없을까요?” “제가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설은 높아가는 추세이며, 주간보호역시 장애 아동 중심의 주간보호를 하고 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지적장애인들

탄 석인 한숨을 쉰 부모님들... 올해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들의 걱정으로 최근 주간보호센터는 전화, 내방상담이 끊이지 않는다.

방안의 내용을 골라져 지역사회 소규모의 거주시설 확대 및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지향은 언급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김용복



날씨가 풀리면서 예고없는 불청객인 구제역의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

질 우려가 높다. 양축농가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축사나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할 경우 구제역 발병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 청정축산, 구제역 예방으로부터

역은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농협전남본부도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전력소모량 적게 만들어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다가 얼마전 호소평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하나 샀다.

의심스러워 사용을 딱 중단하고 한 달을 지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시 전기료가 5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심스러워 사용을 딱 중단하고 한 달을 지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시 전기료가 5만원대로 떨어졌다.

### 無等鼓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은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뱅 돌리버리고 있었다.”

천만은 2천640만㎡의 갯벌, 25만여㎡의 갈대밭에다 각종 조류와 염생식물 등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지난 2006년 국내 연안습지 가운데 처음으로 란타르 습지에 등록, 세계 5대 습지의 하나가 됐다.

#### 순천만



순천출신 소설가인 김승옥의 대표작 ‘무진기행’의 일부분. 여기에서 무진(霧)은 안개 자율한 포구, 곧 순천만의 대대 포구를 말한다.

순천만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찾으면서 각종 쓰레기 투기는 물론 갈대밭이나 물길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위협수위까지 몰리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01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원국 2200-511	문 화 회 보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 화 회 보 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미 케 링 국 2200-521
경 제 부 2200-634	어 려 면 채 부 2200-679	광 고 서비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다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